

주제 |

---

# 「연애탄에 애저터널을 놓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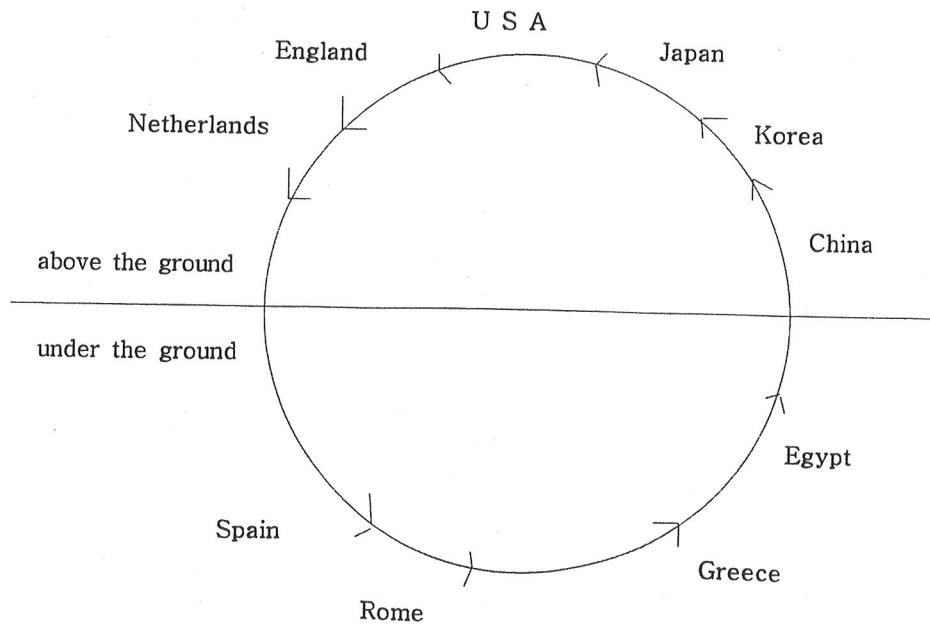
연세대악교 명예교수  
왕 악 주

## 「현해탄에 헤저터널을 놓자」

황학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필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의 과정을 일본에서 마치고 귀국하여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창설한 후 대학에서 35년간 근무하다가 지난 1994년 정년퇴직을 했다. 과거 1천여년 전부터 일본을 가르친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지난 1백여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배우는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 그림은 필자의 시각으로 본 세계사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본 것이다.



&lt;그림 1&gt; 세계사의 흐름

## 손잡으면 세계의 중심으로

18세기는 네덜란드, 19세기는 영국, 20세기는 미국이 세계를 리드한 국가였던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맞이한 21세기는 전 세계가 좁아지고 크게 변했기 때문에 한 나라가 1백년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됬다. 이러한 가운데 21세기는 아시아지역의 국가에서 세계를 리드할 것이라는 예상은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로부터 예견되었던 이야기다. 이는 2040년까지 일본, 2040년부터 2070년까지 한국, 2070년부터 2100년까지는 중국이 세계를 리드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최근 이들 아시아 3국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일본 혼자서 세계를 주도하기는 어렵게 됐고 한국 역시 단독으로 세계의 주도 국가가 되기는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앞으로 예측한 판단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안의 한가지는 바로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협력하여 60~70년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다행히 두 나라는 동일 문화권 속에 인접해 있으므로 두 나라가 손을 잡으면 21세기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바탕을 둔 한 예로써 필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현해탄에 터널을 놓는 방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한다.

얼마전까지 매년 전 세계에서 건설에 투자되는 금액은 2천조 가량, 건설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합쳐서 이르는 말인데 2천조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5백조가 일본 단독으로 투자하는 금액이고 미국과 캐나다가 5백조, 유럽이 5백조, 나머지 5백조를 그 밖의 나라에서 투자하고 있다.

## 건설부흥해야 경기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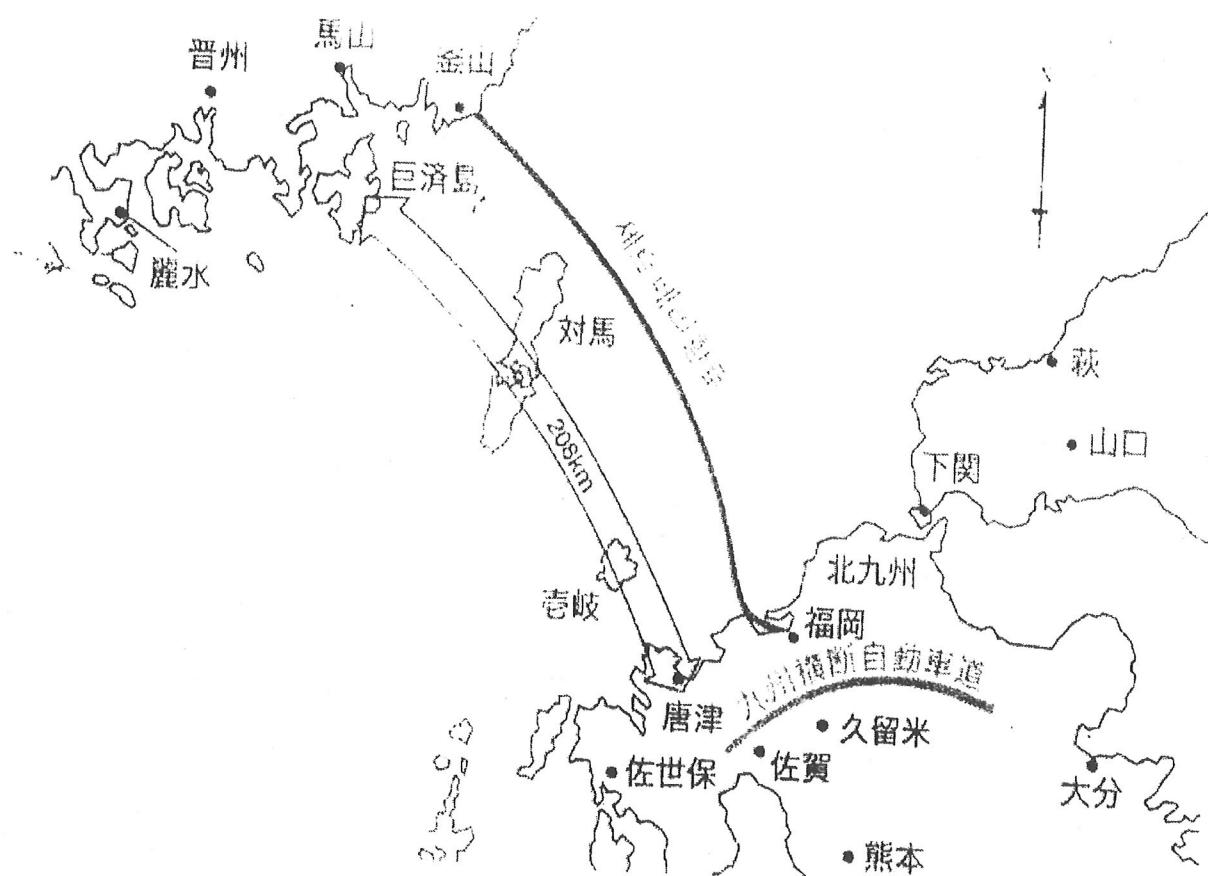
일본의 경우 건설업과 관련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40%에 이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 국민의 25%라는 적지 않은 비율이 건설업에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볼 때 건설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한국도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렵고 일본 역시 퇴보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양국 모두 경기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길은 건설사업을 부흥시키는 일인데 이런 일련의 사업 가운데 하나가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현해탄 터널공사의 착수”인 것이다. 이 사업에 예상되는 비용은 백조원. 그러나 이를 통하여 양국이 누리게 될 파급효과는 수백조 이상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가 실크로드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 과거 중국 서쪽 장안(현재 서안)을 기점으로 로마로 이어지는 길이다. 수천년 전 낙타에 비단을 실어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운반되던 그 길의 연장선에 이제 현해탄 터널이 놓이게 되면 실크로드의 출발점은 일본의 동경이 될 것이다. 수천년전 낙타로 서역 땅을 연결한 실크로드가 이제 지구상 최초로 고속철도가 달린 일본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엄청난 프로젝트가 현해탄 터널공사에 관련되어 있다. 이 사업이 바탕이 되어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면 21세기 양국이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지 않겠는지...

필자의 판단으로는 지금이야말로 현해탄 터널을 놓을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되므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일본의 국무총리가 현해탄 터널사업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통해 두 나라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그림 2> 현해탄터널 사업의 지도

韓日海底トンネル研究開発セミナー 2007.2.21

## 玄界灘に海底トンネルを繋ごう

ファン・ハクジュ  
延世大学名誉教授

筆者は小学校から大学院までの課程を日本で終え、帰国して延世大学土木工学科を創設した後、大学で35年間勤務し、去る1994年定年退職をした。過去、千年余り前から日本を導いてきた国家であった我が国は、百年余り前から今日に至るまで多くの分野において、むしろ日本から学ぶ立場にあるのは事実である。次の図は筆者の視角から見た世界史の流れを図で表わしたものだ。

〈図1〉世界史の流れ

### 手を繋げば世界の中心に

18世紀はオランダ王国、19世紀はイギリス、20世紀はアメリカが世界をリードする国家であったのは誰もが知っている。しかし、新しく迎えた21世紀は全世界が狭くなり大きく変化したため、一つの国が百年間主導していくことは不可能になった。このような中、21世紀はアジア地域の国家が世界をリードするという予想は昔から多くの学者が予見していた話である。これは2040年まで日本、2040年から2070年まで韓国、2070年から2100年までは中国が世界をリードするだろうと見込んでいた。

しかし、最近これらアジア3国の状況をみると、日本がひとりで世界をリードするのは難しくなり、韓国もまた単独で世界の主導国家になるのはさらに難しい状況であり、今後、予測した判断の修正が必至となった。したがって、筆者が考える肯定的な方策のひとつは、まさに韓国と日本が手を取りあって協力し60～70年間世界を引っ張っていくというものだ。

幸いにも両国は同一文化圏の中に隣接しており、両国が手を繋げば、21世紀全世界の中心になれる力をもつだろう。

このような内容を基とした一つの例として筆者は韓国と日本の間の玄界灘にトンネルを繋ぐ膨大なプロジェクトを提案しようと思う。

少し前まで毎年全世界で建設に投資される金額は2千兆ほど、建設は土木工事と建築工事を合わせた言葉であるが、2千兆のうち1/4にあたる5百兆が日本が単独で投資する金額で、アメリカとカナダが5百兆、ヨーロッパが5百兆、残りの5百兆をその他の国が投資している。

### 建設が復興すれば景気活性化

日本の場合、建設業と関連して生計を立てる人が全国民の40%になり、我が国の場合も全国民の25%という少なくない比率が建設業に関連した分野に従事してい

る。しかし、最近の両国の難しい経済事情を考えると、建設業が活性化されなければ韓国もこれ以上の発展は難しく日本もまた退歩の道を歩むしかなくなつた。

両国全ての景気の活性化のきっかけを切り開く道は建設事業を復興させることであるが、このような一連の事業のうちの一つが、筆者が提案する「玄界灘トンネル工事の着手」である。この事業に予想される費用は百兆ウォン、しかしこれを通して両国が享受する波及効果は数百兆以上になるのは明らかである。

われわれがシルクロードについてよく聞いて知っているように、それは過去の中国西側、長安（現在の西安）を起点としてローマに至る道である。数千年前、ラクダに絹を載せ東洋や西洋の文物が運搬されていたその道の延長線に今、玄界灘トンネルが繋がればシルクロードの出発点は日本の東京になるだろう。数千年前ラクダで西域の地を繋いだシルクロードが、今、地球上で最初に高速鉄道が走った日本から始まり、全世界をつなぐシルクロードにならなくてはならな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このようなとてつもないプロジェクトが玄界灘のトンネル工事に関係している。この事業が基となり、韓国と日本が手を取れば21世紀両国が全世界をリードして行ける第一歩になるのではないか。

筆者の判断では、今こそ玄界灘トンネルを繋ぐ適切な時期であると思われる所以、我が国の大統領と日本の国務総理が玄界灘トンネル事業に関する真剣な対話を通し両国を活かす方向に進めば、と思う。

〈図2〉 玄界灘トンネル事業の地図